MILLET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진실을 만나다-밀레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中 관광객 유치 '이순신 대교 효과' ▶2 | 새정부 각료·靑 수석 잇단 의혹 ▶5 | 광주 학교 자치조례 제동 ▶6 | 비렁길을 안은 섬 '여수 금오도' ▶1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428호 1판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음력 1월 12일)

MB 광주·전남 대선공약 26건 이행여부 살펴보니

생색내기 20건…5건은 空約 4대강 빼고 한 건도 못마쳐

오는 24일 임기를 마감하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 중 완료된 사업이 사실상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내내 제기됐던 '호남 홀대론'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나마 추진된 공약들도 '찔끔 예산'으로 생색만 내는 수준에 그쳤고, 일부 공약은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또, 정상추진되던 공약사업 중 일부는 타 자치단체들이 끼어들면서 무기한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도 겪었다.

2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제17대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은 광주 12건, 전남 14건 등 모두 26건이다. 이 가운데 완료된 공약사업은 사실상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유일하다.

공약 5건은 아예 추진조차 하지 않아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쳤다. 나머지 공약 20건은 표면적으론 추진 중에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초기 단계인 용역 중이거나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을 기다리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착수 사업은 광주의 경우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과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유치,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 등이며, 전남은 국립메디컬센터 설립 및 국립심혈관센터유치, 무안국제공항 중개물류중심 공항 육성 등이다.

추진중인 사업도 겨우 걸음마 수준이 대부분이다.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은 지난해 간신히 용역비 2억원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단 한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도 올해 국비가 미반영돼 추진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MB정부의 공약에 따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LED시범도시 사업'의 경우에는 부산과 대구, 경남·북 등이 끼어들면서 잠정 중단돼 박근혜 정부에서 타지역으로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예산지원 전 단계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중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신규 공약실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남해안 관광·해양레저 거점육성 사업은 삼호지구 간척지의 양도·양수문제 등이 해결 안 돼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국가브랜드를 걸고 치르는 F1대회도 정부의 지원 외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공약은 무안기업도시의 지구 지정 해제와 목포대 의과대학 설립 무산 등 주요 사업이 좌초된 상태다. 무안국제공항 중개물류중심공항 육성 계획도 공항확장, 인프라 구축, 도로망 건설 지원 등이 제대로 안 돼 말뿐인 공약으로 남게 됐고, 준공시기를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던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공약도 '헛말'이 됐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탕평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에서만큼은 대선공약의 조기 이행으로 지역소외나 차별 등의 단어가 사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명박 정부 광주·전남 대선공약 추진상황

◇광주

공약	추진상태
광주 R&D특구 지정 및 육성	추진중
LED 조명도시 조성	부분추진
가전로봇 산업육성	추진중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추진중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부분추진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부분추진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부분추진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	미착수
국립 노화연구소 설립 유치	미착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완료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부분추진
한국 민주주의 전당 유치	미착수

◇전남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적극지원	부분추진
서남해안관광·해양레저 거점 육성	부분추진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부분추진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활성화	추진중
환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부분추진
동북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분추진
다도해 해양 관광권 조성	추진중
영산강 뱃길 복원과 영산강 유역 개발	추진중
친환경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부분추진
무안국제공항 중개 물류중심 공항 육성	미착수
국립메디컬센터 및 심혈관 센터 유치	미착수
공동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추진중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부분추진
첨단환경 멀티클러스터 지정 육성	추진중

풍년기원 대보름 쥐불놀이 정월대보름을 나흘 앞둔 20일 오후 함평 월야면 달맞이공원에서 마을 청년들이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고 액운을 쫓기 위해 쥐불을 돌리고 있다. /함평=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맥쿼리 광주 순환도로 자본 축소는 합의 위반"

광주시 승소…市 "자본비율 원상복구 안하면 매입"

자본구조를 변경해 고금리를 챙겨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 사업자 광주순환도로투자(주)와 광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인프라에 투자해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동에 대해 법원이 법적 타당성을 확인해 준 것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맥쿼리는 1구간 관리회사인 순환도로투자에 100% 출자했으며, 이자가 없는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10~20% 금리의 차입금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구조를 변경해 수익을 챙겨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0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순환도로투자로 하여금 자기자본 비율을 협약 당시 상태(29.91%)로 높이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민간투자 사업 기본계획에서 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내도록 했고 이는 사업 시행자 평가요소이기도 했다"며 "시행자의 자본구조는 실시협약 내용에 포함돼 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의 동의 없이 자본구조를 변경한 것은 협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독명령 절차에 관해서도 "순환도로투자는 최고 20%의 연이율로 장기 차입금을 조달해 2010년까지 누적 적자가 1024억원에 이를 정도로 자본 잠식 상태였다"며 "여러 차례 시정 명령, 협의를 촉구했는데도 순환도로투자가 거부한 사실로 미뤄 광주시의 감독명령은 적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판결에 따라 자기 자본비율을 원래대로 높이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순환도로투자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쿼리가 1구간 관리회사로 설립한 순환도로투자의 자본금은 1883억1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자기자본은 130억5000만원(6.93%)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나머지 93.07%(1752억6000만원)를 맥쿼리에 10~20%의 금리를 주고 차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대우일렉 광주공장 4700억원 투자

이재형 대표, 광주시장 면담…내달 市와 MOU

동부그룹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에 4700억원을 투자해 생산설비 확장에 나선다. 공장 부지 확충과 대규모 인력 채용도 진행된다. 광주시와 동부그룹은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오는 3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대우일렉 이재형(62)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을 갖고, 투자계획과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우일렉 인수를 주도한 시점부터 광주공장에 4700억원 규모의 시설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만남에서 이 대표는 대우일렉 광주공장을 중저가가전 및 대형가전 특화 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장 부지로는 제품 증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지 확충과 함께 설비 증대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면으로 계속〉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19일 이재형 대우일렉트로닉스 신임 대표이사(가운데) 등 임원진이 광주 광산구 장덕동 대우일렉 광주공장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신성자동차㈜
www.gj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2013년식 The E-Class
36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59주년 (1954 ~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